

주간 증시 포커스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
FOMC회의 관심 고조
화학·금융주 저점매수를

관심을 모았던 제록스 미 연준의장은 첫 의회증언에서 개선된 경기 판단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지수는 2%하락하며 2402포인트로 밀려났고 코스닥지수도 86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트럼프의 무역분쟁 강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트럼프가 국제관계를 무시하면서 무리한 관세부과 및 규제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달러 대비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유로화와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증시 변동성 확대는 제록스 미 연준의장을 향한 시장 투자자들의 정책적 의구심 때문이다.

따라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중장기 경기 환경에 대한 변화없는 낙관론과 함께 올해 3번 금리인상과 내년 3번 인상 정도의 제한적인 인상 방안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3월 FOMC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 변동성과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2월 조정장 속에서 외국인인 지난달 1일 이후 코스피 200 지수선물 순매도가 4만 계약을 넘어섰고 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이사대우>

3~5월 한우값 오르고 돼지·닭고기값 떨어질 듯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3월호' 전망

3~5월달 한우와 젓소는 사육마릿수와 도축의 감소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발표한 '축산관측 3월호'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도축마릿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3~5월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만6469원)보다 3~10% 상승한 1kg당 1만7000~1만8000원으로 전망됐다.

한우의 경우 5월까지 거세우 출하예정 물량이 감소하면서 도축마릿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줄어든 16만3000마리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젓소 도축마릿수 감소
전년도보다 3~10% 상승
돼지 사육 증가 공급량 늘어
닭 사육수 ↑ 계란값도 하락

축본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우를 사육하려는 농가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지난달 송아지(6~7개월)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 345만원, 암송아지 288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1.3%, 13.5% 상승했으며, 송아지 사육의 한은 늘고 도축은 줄면서 한우 사육마릿수는 작년

보다 0.9% 증가한 275만9000마리로 예측됐다.

젓소는 사육마릿수가 감소하면서 2분기 원유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로 일부 젓소가 원유생산 능력이 저하되면서 도축에 나서는 농가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돼지는 사육과 도축, 생산량 모두 증가해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사육되는 모돈(암돼지) 수는 전년에 비해 2.5% 상당 늘어난 102만여 마리로, 자돈(새끼돼지) 생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4~6.7% 하락한 탕박 기준 1kg당 평균 4400~4700원으로 잡혀졌다.

닭고기 역시 닭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고기와 계란값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이달 3~5월 계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도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3월 도계 마릿수가 전년 동월보다 10.5% 증가한 7965만마리로,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0.8~40.7% 하락한 생체 1kg당 1200~14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권익신장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정기총회

농협 전남본부·전남 농가주부모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사)농가주부모임전남연합회(회장 박민)는 지난 2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가주부모임 대의원 및 지역농협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발표한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다문화여성농업인 육성 ▲행복나눔이 도우미활동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도농교류사업 등이 있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들이 역량을 집중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했다.

또 이날 지난해 지역사회공헌과 봉사활동 우수 조직으로 해남농협농가주부모임과 광양시연합회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가주부모임이 농촌에 활력이 되고 지역사회와 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전남농협도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여성권익신장과 젊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운영

농협은 4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국회와 통과함에 따라 축산 농가를 위해 올해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내면 평가를 거쳐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농협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저기에 지원하고자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안내 및 일선 조직 개편을 위해 일선 축협의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 농협 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한다.

연합뉴스



농가소득 향상 광주연합사업단 추진결의대회

농협 광주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4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광주 관내 연합사업 참여농협 실무자들과 '2018 빛찬들 광주연합사업단 사업추진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사업단은 지역본부와 원예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동곡·평동·송정·대촌·분량농협 등 지역농협들이 상호 협약을 통해 거래교섭력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자 지난 2012년 결성했다.

이날 현재까지 통합마케팅을 통해 350억원 이

상 판매실적을 올리며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사업추진 결의대회에서 광주연합사업단은 지난해 광주지역 농협의 원예농산물 취급액 1039억원에 10% 수준인 103억원을 올려 사업목표액으로 설정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산지와 소비지,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의 농산물 유통체계화를 확대하고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협이 농산물 판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식품부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영농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2018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회수리봉사는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며, 89개 시·군, 읍·면별로 순회할 예정이다.

5개 농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중합,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수리기사 70

명, 차량 41대를 동원해 40개 반으로 편성·실시된다. 농기계 점검 및 정비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을 교체할 경우 부품값은 실비로 받으며,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 인계해 수리한다.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착한보청기' (Good Hearing Aid) featuring '보청기 무료 체험' (Hearing Aid Free Trial) and contact information: 062)655-6544.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 proofing services, including '2~3년만 가는 방수?' (Waterproofing lasts 2-3 years?) and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Roof waterproofing lasts 20+ years!).